

나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굳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하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을 제한한다면 그것 또한 애연가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나 전차등의 밀폐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혹은 회사등에서는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흡연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옆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매너는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불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담배는 피우는 사람의 매너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다시한번 생각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좋게 되고, 공공장소도 깨끗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전에는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나의 주위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애연가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담배를 끊는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의 자유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규칙을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좋은 매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